

가정예배(추모예배) 순서지

개 식 사

사 회 자

(사도신경하심으로 000님의 0주기 추모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 앙 고 백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 이

찬 송

438장

다 같 이

1.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2. 얼굴 뵈기 전에 멀리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날로 가깝도다
3.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후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 도

말 은 이

성 경 봉 독

히브리서 12:1~2

다 같 이

- 1 이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 씬

꺼이지 않는 믿음으로

말 은 이

기 도

설 교 자

찬 송

337장

다 같 이

1.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4.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후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기도 문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설교 예문 ◀

-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 말씀 : 히브리서 12:1~2

마라톤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운동입니다. 42.195km의 장거리를 달리게 되는 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거리와 같이 단숨에 끝내버리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고단한 육신을 인내하며 달려야만 완주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몸의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면 너무 힘겨운 경주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쉽게 저지르기 쉬운 죄와 나쁜 습관들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몸을 가볍게 만들어 최상의 상태로 믿음의 경주에 임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존 웨슬리 목사님을 찾아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웨슬리 목사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돌담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 소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 소가 왜 저렇게 고개를 들고 돌담 너머를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저 소는 돌담을 뚫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고개를 들고 담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 소와 같이 앞에 놓인 근심과 걱정의 담을 너머서 바라보십시오. 담 너머뿐만 아니라 위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인생에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맞이하더라도 예수님 한 분만 집중한다면 완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순간 코스를 벗어나 이탈자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힘을 얻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셨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모두의 기쁨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최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당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짐을 짊어지지 않고 믿음의 경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믿음을 가지고 쫓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용기와 새 힘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는 영광의 상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됩니다. 2천 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구름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그 복을 누렸고, 앞서가신 고 ○○○님 역시 그랬습니다. 고 ○○○님과 함께 신앙 생활하던 시절을 회고해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그를 붙잡아 일으켜주시고, 다시 힘차게 삶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하셨습니다. 고 ○○○님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평생, 항상, 기억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걸어간 신앙의 길을 따라 걸으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